

인터뷰

“윤리경영·정도경영은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의 필수조건입니다”

- 제18대 윤리위원장 만장일치 추대, 비정상적 건설 이미지와 위상 정상화에 주력할 터 -

대한건설협회 산하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김종구 신동아종합건설 대표를 만장일치로 제18대 윤리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부실·부적격 업체들의 난립으로 건설한 건설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책을 그에게 3년 간 더 맡긴 것이다. 김종구 위원장은 “협회 윤리위원회가 건설업의 품위 손상, 건설업 윤리 문란, 건설업계 위신 실추, 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 부정당 제재 처분 받은 자, 회비 체납, 협회 명예 훼손, 회원 품위 손상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정관상의 독립 기구인 만큼,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로 추락한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이미지와 위상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위원장은 반세기 가까이 건설 외길을 걸어온 건설 기술인이자 경영인으로서, 성실 시공과 윤리경영, 그리고 나눔 경영 등의 경영 철학을 구현한 결과 건설업계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1999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2009년에는 산업부문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지난달 21일 김종구 위원장을 만나 건설 윤리위원장으로로서의 소회와 향후 포부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김종구 대한건설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지난 17대에 이어 제18대 윤리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정책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데 수년 동안 윤리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느끼신 소회와 역점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함이 많은 사람에게 연이어 윤리위원장을 맡겨 주신 것은 건설업계 비정상의 정상화에 힘쓰라는 회원들의 바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설산업의 윤리경영 환경 조성과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 값을 받고, 제 값을 주는 풍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 환경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공사조차도 발주처의 과실과 예산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에 따른 관리 비용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협회가 적극 나서 개선에 노력한 결과, 이제 조금씩이나마 그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일부 건설업체가 조달청을 해킹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성실하고 올바르게 경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매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로서 윤리위원회에서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한편,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우리 스스로 회원을 징계하고 자정 노력을 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 공사, 하자 보수 미이행,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 등 불법의 온상이 되는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발본 색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윤리경영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윤리경영은 이제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이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 투명한 기업, 윤리적인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성장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백년을 가는 계속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경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낮은 수준입니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협약을 거의 또는 전혀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46위를 기록했는데,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에 머물렀습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기업의 태생적 한계인 영리 추구에 가려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건설산업도 과거 잘못된 관행과 비양심적인 일부 건

인터뷰

설업자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형성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골이 너무 깊어 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산업에서 윤리 경영은 더욱 중요하며, 건설산업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만 국민에게 사랑받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입찰 해킹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질서 확립 및 윤리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협회 윤리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4월과 12월에 서울중앙지검은 조달청 공공 공사 입찰시 전자입찰 해킹으로 불법 낙찰 받은 업체를 적발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조달청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입찰 해킹 범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해킹 방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처분청인 지자체도 해당 업체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 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예정입니다.

전자입찰 해킹 범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낙찰을 받아 공정한 경쟁을 준수하는 선의의 건설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신뢰가 생명인 현대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 윤리위원회는 연루 업체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 후 회원 제명 및 공개 계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 「국가계

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부정당 제재 처분 등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제재를 건의·추진할 계획입니다.

협회에서는 2011년부터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행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무엇이며, 올해 열리는 윤리경영대상은 이전과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지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건설업체의 부조리, 부실 공사, 불공정 관행 등으로 건설업계가 비윤리적 산업으로 오인되고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범적인 업체를 발굴하여 귀감이 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관행에 대한 예방과 부정적인 과거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업계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자 2011년부터 '건설업 윤리경영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 윤리경영대상은 건설업자에게 윤리경영에 대한 자각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응모 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에 윤리경영 도입 및 정착을 위해 「건설업 윤리경영대상」의 활성화가 요구되지만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한 업체는 표창과 상호협력평가 점수 가점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대외 인지도 상승과 격려를 위해 상의 품격을 높이고 혜택도 추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이제까지 윤리경영대상 수상 업체는 대한건설

협회 회원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윤리경영이 협회 회원을 넘어 전체 건설산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시상부서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통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등 건설용역업체까지 경영 대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건단련 회장상만으로 표창을 수여하였는데, 정부기관 포상(국토부 장관 표창)을 추서할 계획입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윤리경영을 정착·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00년대 들어 건설산업의 사회적 활동 환경이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보다는 국민의 행복을 창출하는 공익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건설산업도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경영 목표와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비곤 호수 효과(Lake Wobegon Effect)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하고 객관적이지 못해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인식은 믿을 게 못될 뿐만 아니라 착시효과로 인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용어입니다. 사회 공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정도 공헌했으면 됐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맹점으로 극복해야 할 인식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회 공헌은 국민이 살고 있는 시장 환경과 사회를 바라보는 기업 나름의 비전을 담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사회 공헌에 대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은 하나의 트렌

드이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건설업계 또한 이미지 개선 노력과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안전과 행복을 찾는 품격 있는 산업으로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설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글로벌 경기 침체, 북한의 불확실성, 세월호 사건 등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은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건설인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보듬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 내부적으로는 생산 주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움직임, 분리 발주 등 갈등 지향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법과 원칙 준수를 통한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모든 건설산업 참여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인들은 공정 경쟁과 윤리경영의 사회적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도록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킴으로써 준법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룰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리경영이 기업 내부에서 정착되고 나아가 사회 일반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경영자의 올바른 이해와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CERIK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